

- 주요 뉴스: Moody's,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.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반영
 -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시작, 상호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추가 화동 합의
 -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, 기대인플레이션은 큰 폭 상승
 - 트럼프 대통령,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불가능. 2~3주 내로 각국에 관세율 통보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5월 기대인플레 급등 등이 영향. 美 신용등급은 장 종료 후 발표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소비심리 약화에도 무역합의 기대감으로 상승
다만 장 종료 후 발표된 미국 신용등급 하향으로 지수선물은 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 후 美 신용등급 하향으로 상승폭 축소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02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상승
Moody'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발표 이후 상승폭 확대

※ 뉴욕 1M NDF 증가 1395.9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98.9원, 0.1% 하락). 한국 CDS 상승

		5/16일	5/15일	전일대비			5/16일	5/1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958.4	5,916.9	+0.70%	국채 금리 10y	미국	4.48%	4.43%	+5bp
	유럽	549.26	546.95	+0.42%		독일	2.59%	2.62%	-3bp
	중국	3,367.5	3,380.8	-0.40%		영국	4.65%	4.66%	-1bp
	일본	37,754	37,756	0.00%	CDS 5y	한국	31bp	30bp	+1bp
	한국	2,626.9	2,621.4	+0.21%		중국	52bp	53bp	-1bp
환율	달러지수	101.09	100.82	+0.21%	위험 지표	EMBI+	380	383	-3bp
	유로화	1.1163	1.1187	-0.21%		VIX	17.24	17.83	-3.31%
	엔화	145.70	145.67	-0.02%		WTI유	62.49	61.62	+1.41%
	위안화	7.2136	7.2074	-0.09%	원자재	구리	455.6	464.5	-1.92%
	원화	1,400.0	1,398.0	-0.14%		금	3,203.7	3,240.1	-1.1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Moody's,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.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반영

- 16일 Moody's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를 반영하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'Aaa'에서 'Aa1'로 한 단계 하향조정
- Moody's는 미국의 경제 및 재정 시스템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, 이것만으로는 재정지표 악화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으며, 지난 10년 이상에 걸쳐 미국은 정부부채 및 이자지급 비율이 상당히 증가해 비슷한 등급의 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
- 아울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이자비용의 추세를 되돌릴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이라며 앞으로 다년간 의무지출과 적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러시아-우크라이나 협상 시작, 상호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추가 회동 합의

-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성사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은 휴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90분만에 종료. 러시아에서는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,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
- 중재국인 튀르키예는 양측이 휴전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다시 갖기로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,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각각 1천명씩 포로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언.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정상 간 직접 대화를 요청했다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이 논의되었음을 시사
-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,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마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군대 철수 등 의도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만 내놓았다고 주장
-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휴전과 실상 중단을 거부한다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

-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 압박을 위한 추가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. 추가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, 노르스트림, 금융 부문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와 함께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강화 등이 포함

■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,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폭 상승

-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(예비치)는 50.8로 4월보다 1.4포인트, 전년 동월보다 18.3포인트 급락. 1년 기대 인플레이션(예비치)은 7.3%로 전월의 6.5%에서 또다시 급등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 기록
- 미시건대는 관세 유예 이후 일부 소비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여전히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,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자 인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■ 트럼프 대통령, 모든 국가와의 협상은 불가능. 2~3주 내로 각국에 관세율 통보

-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을 원하는 국가가 150개국에 달하지만 모든 국가들과 개별 협상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며 향후 2~3주 안에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율을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언급
- 다만 몇 개 국가가 관세율을 통보 받을 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, 교역 상대국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은 부재

■ 애틀란타 연은 총재, 금년 미국 성장률이 1%를 하회할 가능성

- 래피엘 보스틱 총재는 미국의 금년 성장률이 2.0~2.5%가 아니라 1% 혹은 0.5%일지 모른다고 전망. 하지만 회복력이 약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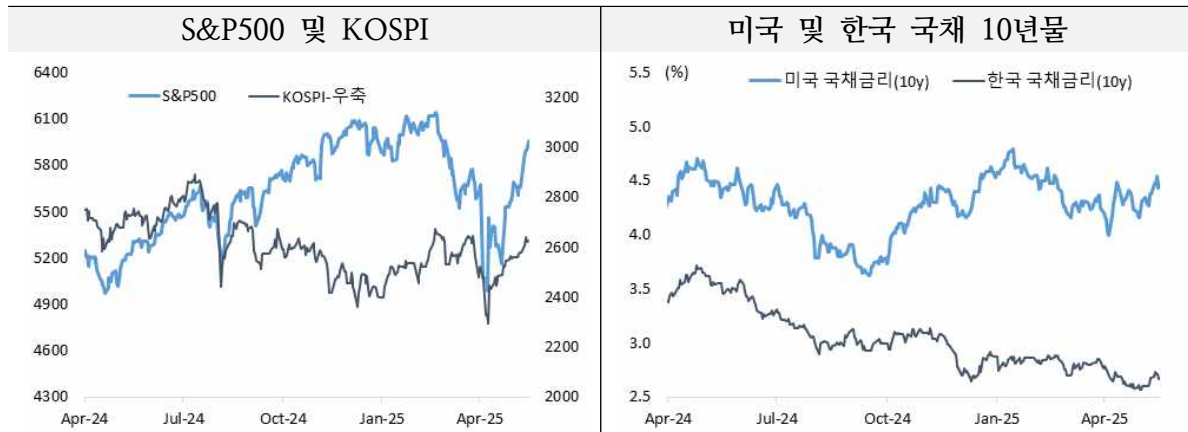
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,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

-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공화당의 세제 법안이 16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찬성 16표, 반대 21표로 부결. 공화당 강경파들이 저소득층 의료보험과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당에 동참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연준식 점도표 도입에 반대

-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ECB도 연준의 점도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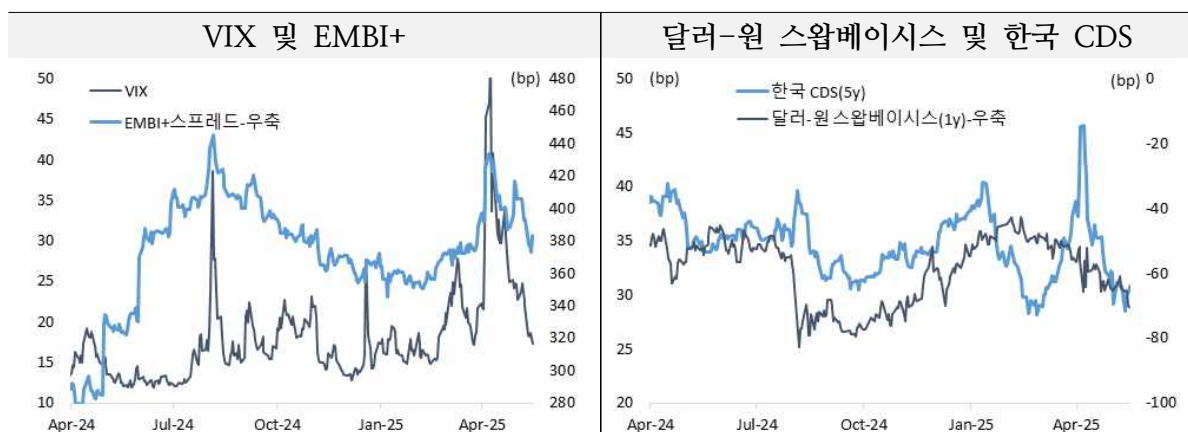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31, E-mail jsch@kcif.or.kr